



미 증시, 고용지표 호조에 긴축 우려 부각되며 하락

미국 증시 리뷰

5일(목) 미국 증시는 ADP 민간 고용 호조, 최종금리 5% 수준을 전망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이 인플레이션 및 긴축 우려를 재차 부각시키면서 하락 마감 (다우 -1.02%, S&P500 -1.16%, 나스닥 -1.47%). 업종별로 에너지(+2%)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0.6%), 금융(-0.9%)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부동산(-2.9%), 유틸리티(-2.2%), IT(-2%)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애플(-1.06%), 알파벳(-2.13%), 아마존(-2.37%) 등 시총상위주 대부분 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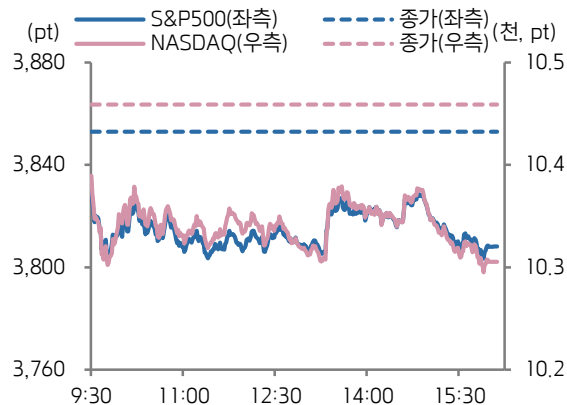
12월 ADP 민간 고용자수는 23.5만명(예상 15.3만명, 전월 18.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 12월 임금은 전년 대비 7.3% 증가. 상품 생산 부문은 2.2만명 증가에 그쳤지만, 레저 및 접객업에서 12.3만명,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5.2만명,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서 4.2만명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21.3만명 증가. 12월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역시 44.7(예상 44.4, 전월 46.2) 기록하며 위축세는 심화되었으나 고용이 지속된 영향으로 예상치 상회.

반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20.4만명(예상 22.3만명, 전주 22.3만명)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지표 발표 이후 달러화는 강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차 상승세를 보임.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023년에 물가가 연준 목표인 2%까지 하락하며 디플레이션을 전망한다고 언급. "연준의 선제적 정책은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책금리가 아직은 충분히 제약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3년 내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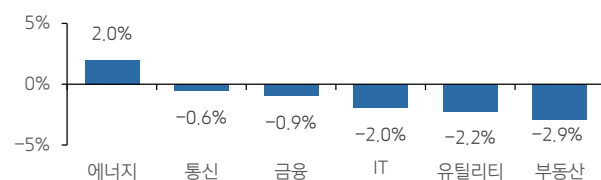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주택 이외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을 근거로, 2023년 최종금리를 5% 이상으로 전망하며 2024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역제를 위해 연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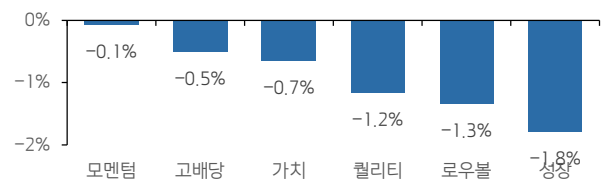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08.10	-1.16%	USD/KRW	1,269.58	-0.18%
NASDAQ	10,305.24	-1.47%	달러 지수	105.14	+0.85%
다우	32,930.08	-1.02%	EUR/USD	1.05	-0.78%
VIX	22.46	+2.04%	USD/CNH	6.89	-0.16%
러셀 2000	1,753.19	-1.09%	USD/JPY	133.44	+0.61%
필라. 반도체	2,518.52	-1.9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422.50	-1.51%	국고채 3년	3.655	+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75	+0bp
Eurostoxx50	3,959.48	-0.36%	미국 국채 2년	4.458	+10.4bp
MSCI 전세계 지수	611.12	+0.93%	미국 국채 10년	3.720	+3.7bp
MSCI DM 지수	2,624.35	+0.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74.22	+1.21%	WTI	73.88	+1.43%
MSCI 한국 ETF	57.01	-1.06%	금	1838.3	-1.1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7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금일 밤 발표 예정인 미국 12 월 비농업 고용 지표 경계심리의 국내 증시 장중 확산 가능성 2.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4 분기 잠정실적 결과 3. 두바이 투자, 중국 관광 재개 등과 관련된 개별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경제를 둘러싼 전망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으며 연준도 이를 반영해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고용시장의 호조세가 증시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선행지표인 미국 ISM 제조업 PMI(12 월 48.4)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나 미국 가계의 소비도 인플레이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문제는 전일 발표된 12 월 ADP 민간고용(23.5 만건, 컨센 15.0 만건)이 서비스업 고용 호조(+21.3 만 but 제조업 +2.2 만)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이 혼선의 유발 요인.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더 중요한 것은 맞지만, ADP 데이터는 “소비의 근간인 소득을 창출하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미국 경제는 견고할 것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인하를 연내 단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비스업 물가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물가도 CPI 와 달리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 품목들의 고물가 고착화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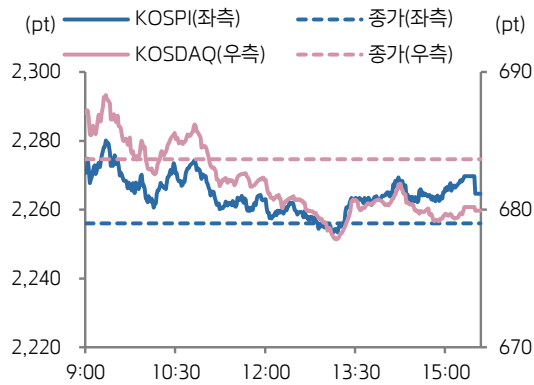
그러나 고용 데이터와 여타 실물 데이터의 괴리는 지속성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단기 금리차 역전, ISM 지표 위축 등을 감안 시, 고용시장의 둔화가 시간 문제라고 전제하는 것이 적절. 또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는 물가에 충분히 제약하는 수준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연준 긴축 불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매파적인 FOMC 의사록 등 대외 불안에도, 반도체, 은행주 등 대형주 강세 속 로봇, 리오프닝, 두바이 테마들의 순환매가 전개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6%). 금일에는 미국 증시 약세, 12 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경계감 등 미국발 부담요인 속 주중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단기 포지션 정리 물량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흐름을 보일 전망.

장중에 주목할 이슈는 최근 주가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으며 반등세의 연속성 결정하는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잠정실적이 될 것. 현재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22 년 4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6.2 조원(-55% YoY), 3,200 억원(-53%YoY)으로 '21 년 대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미 이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중립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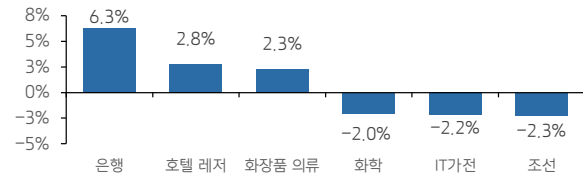
한편, 국내 증시가 좀처럼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 두바이의 10 년간 1 경원 투자 집행 뉴스, 중국 리오프닝 등과 관련한 테마주, 중소형주 내에서 주가 급등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주식시장의 일상인 것은 사실. 하지만 매크로가 불안하고 거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는 테마주들의 주가 상승에 공격적으로 동참하기 보다는, 팩트 체크 및 실적 확인을 해나가면서 테마주 투자를 보수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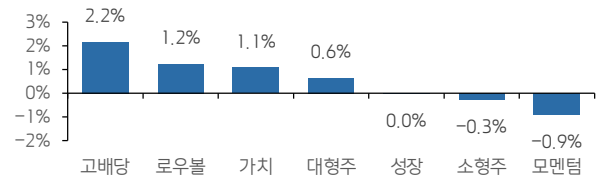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